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여대생의 생활 체험

Life Experience of Female College Student with Atopic Dermatitis

오윤희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Yun-Hee Oh(oyh2014@chu.ac.kr)

요약

본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여대생을 대상으로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생활 체험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총 9명의 참여자를 심층 면담하여 생활과 관련된 본질적 주제를 신체성, 관계성, 시간성, 공간성의 4개의 실존체에 따라 나타냈다. 참여자들은 여성으로서 부정적이며 감추고 싶어 하는 자신의 몸을 고통으로 체험하였으며 타인의 시선으로 자책감과 지지 받지 못하는 관계성을 나타냈다. 홀로 고립하는 것이 안전한 공간성을 나타내고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체로 살아가는 시간이 부담이 되는 독특한 생활 체험하게 된다. 본 연구 결과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여대생의 체험에 근거하여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세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지지를 통해 참여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아토피 피부염 | 해석학적 현상학 |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explore the meaning and nature of life world on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atopic dermatitis. The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method which was developed by Van Manen was used.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in two months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using open-ended questions. A total of nine women with atopic dermatitis participated in the study. Results: Essential themes that fit into the context of the four existential grounds of body, other people, space and time were: rage against the body, the conflict with symptoms, unacceptable life, continued efforts.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deep understanding of female students with atopic dermatitis who are relatively alienated from socie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health professionals could develop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s to improve quality of life of these women.

■ keyword : | Atopic Dermatitis | Hermeneutic Phenomenology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아토피는 심한 가려움과 홍조, 습진, 건조화가 동반되

는 만성 피부염으로 최근에는 생활환경 변화로 성인에 서도 아토피 피부염이 증가 하고 있다[1]. 우리나라 18 세 이상 성인 대상자의 2.9%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나 타나며 이 중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고하고

접수일자 : 2015년 07월 07일

수정일자 : 2015년 08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8월 23일

교신저자 : 오윤희, e-mail : oyh2014@chu.ac.kr

있다[2].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성인들은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심한 가려움증으로 일상생활 중에 과민한 감각이 지속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3]. 무엇보다, 성인의 아토피 피부염은 몸의 피부 증상은 호전이 되는 반면 얼굴 부위 홍조, 손의 습진, 두피의 비듬, 팔, 다리 피부가 두껍게 되는 건조화로 나타난다[4]. 외형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대상자의 외모 만족도를 낮추고 이는 삶의 질 저하까지 초래 한다[5]. 게다가, 반복되는 증상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높이고[2], 심지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까지 높이고 있다[6].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증상에 따른 삶의 질 관련성이 높아[7], 여성 대상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생은 성인초기시기로 신체와 용모에 관심이 증가한다.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만족하는 대학생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생활에 적극적이며 안정감을 느끼지만, 외모에 불만족하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한다[8]. 특히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여대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저하되고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사회적인 건강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9]. 여대생에게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질환은 증상 관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형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심리사회적인 문제가 예상된다. 이러한 간호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여대생의 경험하는 삶을 깊이 탐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간호학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다룬 연구는 대부분 아동 혹은 아동의 어머니이며 연구내용은 관련요인, 관리실태, 양육 스트레스 등이 주를 이뤘다[10]. 성인초기인 여대생들이 아토피 피부염을 가질 경우 독특한 주관적 삶의 경험과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예상 되므로, 이에 대해 효과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삶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접근은 생생한 체험의 본질이나 의미를 서술하고 해석할 수 있다[11]. 그러므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여대생이 자신의 질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내면화하는가에

관한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해석학적 현상학적 접근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여대생의 시각에서 생활에서 경험하는 본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여대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중재 개발 적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여대생의 체험의 의미를 드러내어 밝히고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 문제는“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여대생의 체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러한 체험 본질의 의미와 구조는 무엇인가?”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여대생들의 생활 체험을 통찰하며 나타내기 위하여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고자 Van Manen의 연구방법[12]을 이용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상의 적절성을 유지하고자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반 의원 이상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 받았으며, 1년 이상의 유병기간과 6개월 이내에 아토피 피부염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경험이 있는 여대생으로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면담한 결과 7명에서 자료 수집이 포화되었고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2명을 더 면담하여 총 9명이다. 참여자의 연령은 평균 22.3세(21~25)이고, 전공 학과는 인문사회계열 3명, 의료보건계열 6명이며,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기간은 평균 5.4년(1~8)이었다[표 1].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나이	유병기간	부위	증상	전공학과
1	21세	8년	팔, 다리	가려움	의료보건
2	22세	3년	목, 팔, 다리	가려움, 진물	의료보건
3	23세	4년	얼굴, 손	홍조, 진물	의료보건
4	22세	5년	손, 팔, 다리	가려움, 감염	인문사회
5	21세	2년	얼굴, 팔, 다리	진물, 가려움	의료보건
6	25세	8년	손, 유두, 팔, 다리	진물, 가려움	인문사회
7	23세	8년	얼굴, 손, 유두	홍조, 진물	인문사회
8	22세	6년	팔, 다리, 손	가려움, 진물	의료보건
9	22세	5년	유두, 손, 팔, 다리	진물, 가려움	의료보건

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까지 2개월이었다.

참여자의 선정기준에 맞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방법을 알린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자와 참여대상자와 같은 경험을 가진 대상자를 소개로 모집하는 눈덩이 표집 방법을 이용하였다. 면담 횟수는 1-3회였으며, 1회 면담 시 소요된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로 평균 50분 소요되었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를 직접 선택하여 카페나 휴게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 내용은 mp3 기기로 녹음하여, 면담 당일에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다.

4. 실존적 탐구

4.1 연구자의 경험 성찰

본 연구자는 6세에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받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증상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에게 아토피 피부염 경험은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가려움, 결국에는 피가 나도록 긁고 나서 갖게 되는 자괴감, 이러한 과정들의 무수한 반복으로 표현되었다. 대중목욕탕에 갔을 때 주위의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잃게 되었다. 마치 카프카의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가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신하면서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피하고 벌레로 여기는 것과 같은 심정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아토피 피부염

을 앓고 있는 여성들, 특히 외모와 신체상에 관심이 많은 연령대인 여대생의 경험은 어떠한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4.2 어원적 추적

아토피(atopy)란, 고대 그리스어인 'atopos'가 어원이다. '기묘한'의미로, '부적절한'정체를 알 수 없는'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이는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정확하지 않고 부정적임을 나타내며, 아토피 피부염이 명확한 발병 원인이나 기전, 치료법이 있지 않는 특징을 드러낸다.

4.3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

연구자들은 판단중지를 위해 선 이해를 연구의 최초 단계에 목록화하여 이를 괄호치기하고 면담의 본질에 직면하고자 하고 문헌고찰을 글쓰기 과정에서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의 선행경험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선 이해는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여대생은 자존감 저하, 부정적 정서를 가지게 될 것이며, 아토피 피부염을 숨기고 싶어 할 것이다."와 같은 내용이었다.

연구자들은 판단중지를 위해 연구에 대한 가정과 선 이해를 참여자 자료와 문헌내용과 상호비교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4.4 문학과 예술로부터의 경험적 묘사

본 연구를 위해 문학, 예술작품 등을 통해서도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다. 연구 <아토피아>[13]에서 30대 여성 '지훈'의 1인칭 시점으로 구성된 가상 노트인 "아토피와 함께 살다"에 묘사된 글에서는 아토피 증상으로 가족과의 갈등을 표현하며 가족들이 자신의 병을 이해해 주고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긁지 못하게 하는 엄마와 몰래 긁으려는 나는 숙명의 라이벌이다. "엄마, 나에게는 가려움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단시킬 의무가 없어." (중략) 나는 엄마가 긁지 말라고 하는 대신 차라리 함께 울어주기를 바랐다.

동생이 날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모기에게 물리고 밤새 벅벅 긁으면서 말했다. “언니, 가려움과 아픔이 묘하게 공존하는 느낌이 야!”

작가의 다음 말처럼 아토피 피부염과 오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아토피 피부염은 자신의 일부이며 피해야 할 공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직하게 사유해야 할 질문이다.

아토피야, 너는 왜 내게, 우리 집에, 우리 학교에, 우리나라에 찾아왔니?

책속 흥의 대표작인 <가면시민 X_Masked Citizen X>[14]는 로봇을 형상한 듯한 가면을 만든 작품이다. 자신의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 타인들과의 관계를 꺼려했던 작가의 개인적 경험으로 출발한 이 작품은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뿐만 아니라 병을 감추게끔 만드는 사회적인 관습, 그리고 얼굴을 상품으로 인식시키는 사회에 반발을 나타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참여자가 속한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 연구 승인(승인번호: HR-009-001)을 받았다. 면담에서 연구 참여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 내용은 녹음을 할 것이며 필사본과 연구 보고서, 그 외의 모든 문서에 익명으로 처리하며 연구 후에는 모든 자료는 폐기할 것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도중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하였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여대생 체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Van Manen[12]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필사된 내용을 반복하여 읽고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내기 위하여 전체적 접근법, 선택적 접근법으로 텍스트 분리 작업으로 하였다. Van Manen[12]은 체험된 글쓰기 과정에서 체험의 실존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네 개의 생활세계 실

존체들 즉, 체험된 신체성, 체험된 공간성, 체험된 시간성, 체험된 관계성은 사회적 맥락 혹은 역사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특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된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으며 의미를 반성적으로 탐구하여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여대생의 생활 체험을 4가지 실존체로 분류하고, 이를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었다. 분석된 주제와 의미가 같은 진술들을 어원, 문학작품에서 추출하여 면담자료에서 밝혀진 주제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비교, 검토하여 주제의 민감성을 높이고 의미와 주제를 결정하고 전체적으로 현상을 기술하였다.

7. 연구의 엄밀성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의 엄밀성의 평가기준[15]에 따라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확증성의 측면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참여자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접 모든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필사하였다. 참여자들에게 필사한 인터뷰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경험 진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적용성을 확립하기 위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술 내용이 반복되고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참여자 면담을 하고 예술작품, 환자들의 수기, 아토피 피부염 커뮤니티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연구 과정을 자세히 기술 하였다. 연구자는 중립성으로 판단중지를 위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선 이해를 확인하여 목록화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였다. 본 연구자는 대학원 과정의 질적 연구 수업을 수강하였고, 질적 연구로 학위 취득, 국내 질적 학회 참석 경험으로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면담을 위한 지침, 질문 구성 및 면담 을 위한 훈련은 질적 연구를 강의하는 교수가 지도하였다. 분석 작업은 질적 연구경험이 많은 박사 과정생이 함께 참여하여 분석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체험된 몸

1.1 고통스런 몸

하루 종일 지속되는 가려움은 참여자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긁게 되면 진물과 피가 나지만 긁는 중에도 가려움이 있는 불쾌한 느낌이었다. 가려움을 멈추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이 때문에 생긴 신체적 고통은 ‘통증보다 힘든 가려움’, ‘몸에 대한 분노’가 핵심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피부를 떼어내 버리고 싶다거나 가려운 것보다 차라리 쓰리고 아픈 것이 낫다고 참기 어려운 고통과 이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였다.

“항상 가려 워요 지금도 가렵고 긁지 않으며 안 될 것 같아요 잠잘 때 가려워서 잠을 못 자거나 자다가 깰 때도 많아요 정말 피부를 떼어 버리고 싶어요 (참여자 4).”

“피가 날 정도로 심하게 긁어요 그러면 쓰리고 아픈기는 하지만 더 이상 가렵지 않아요 (참여자 6).”

1.2 감추고 싶은 몸

인생에서 가장 예쁘게 보이고 싶은 시기에 검고, 거친 피부는 여대생으로서 무력하게 만들었다. 또래 여대생들의 하얗고 흉터 없는 피부를 부러워하며 이러한 자신이 불결하다고 느껴졌다. 남들과 달리 꾸미거나 내보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 하였다.

“검게 남아 있잖아요. 때가 쌓인 것처럼 더럽게 보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외적인 거에 신경을 쓸 나이니까요. 치마도 입고 싶고 짧은 것도 입고 싶는데 못해요 (참여자4).”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어요. 상처를 굳이 보여주기 싫어요 (참여자 1).”

1.3 만신창이가 된 몸

참여자들의 팔과 다리에는 상처투성이다. 피부는 긁어서 진물이 나다가 피까지 나고 상처 딱지는 늘 붙어

있다. 자신의 몸을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거울에 비추어 보기도 싫어하였다. 더우기 성인 아토피 증상은 유두 부위의 진물과 소음순의 가려움증은 여대생으로서 당혹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였다.

“뺨이랑 이마가 다 붉어 저요 온 얼굴이 바늘을 찌르듯이 아파요 진물도 흐르고 피나고 그러다가 굼고.. 심각할 때는 거울 보기도 싫을 정도로(울먹거림)...(참여자 5).”

“정말 생리할 때는 미치겠어요 혼자 안절부절 못해요(참여자 6).”

“유두에서 진물이 나오 브래지어가 딱 달라붙을 정도로요 (참여자 7).”

2. 체험된 관계

2.1 자책 느끼게 하는 사람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의 생체기로 인해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시선으로 괜한 자책감이 들고 이들이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억울함까지 들었다

“친구들은 딱히 뭐라 안하는데 제 스스로 느끼기에 남들이 볼 때 여기(흉터)를 자주 본다고 생각하게 되요. 다른 곳보다 더 오래 보는 것 같고...(참여자 2)”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더라구요. 옳은 것도 아닌데 속상해요(울먹거림)..(참여자 7)”

2.2 이질적인 동질감

참여자들이 체험한 관계는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과는 아토피 피부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질감을 경험하거나 아토피 피부염을 경험하는 가족이 있는 친구 또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낯선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서는 동질감을 체험하였다.

“집에서 안 나오면 이해해주는 친구도 있지만 왜 그런 것 때문에 안 나오지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참여자 3).”

“여름에 팔다리 가리고 있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도 아토피인가하고 반가워요. 동질감 같은 거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참여자 6)”

2.3 지적보다는 지지를 바람

피부 흉터와 긁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참여자의 행동을 지적할 때면 사람들을 피하거나 갈등으로 나타났다. 연구 [아토피아]에서 주인공은 이러한 자신을 가족들이 그대로 받아 주기를 바랐다.

“엄마는 무조건 굶지 말라고 해요 저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엄마를 피하게 되요. 나도 스트레스 받아요. 숨어서 긁는 적도 있어요(참여자 1).

3. 체험된 공간

3.1 피해야 되는 곳

참여자들은 그들이 있는 공간에서조차도 가려움과 생채기로 인해 자유롭지 않고, 가고 싶은 공간에서의 출입 하지 못하였다.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공간이 자신에게만 피해야 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수영장 소독액이 닿으면 아파서 수영장도 못 가고 대중 목욕탕도 잘 안가요. 심할 때는 거의 출입을 안해요(참여자 4).”

“손에 물이 닿으니까 가렵고 물집도 생기고 나중에는 피부가 완전히 벗겨져요. 목욕탕, 주방 습기 많은 곳은 가지 않아요(참여자 9)”

3.2 홀로 있는 곳

아토피 증상이 심해지면 자극을 피하기 위해 자신만의 안전한 곳에서만 지내기도 하지만, 타인의 시선이 의식되어 거북함이 들면 홀로 고립하는 것이 편했다.

“제 자신이 얼굴을 보기 싫고 남한테도 보여주기 싫어서 안 나가요. 나간다 해도 모자 꼭 눌러쓰고 다 가리고 그렇게 잠깐 나가요. 얼굴에 특히 심할 때는 그냥 집에만 있어요. 심하면 두 석 달 동안 집에 있어요 (참여자 5).”

4. 체험된 시간

4.1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가려움과 그로 인한 고통이 일상화되면서 심각성을 회피하는 경험을 체험하였다. 그러한 경험은 이전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에서도 둔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거나, 또는 체념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만성적으로 되다 보니 이제 저러다 말겠지 좀 있다가 가라앉겠지 하고 생각해버리니까 심각성을 잊어요(참여자 4).”

“관리는 잘 안 해요. 오히려 만성이 되니까 그냥 놔두게 되요(참여자 3).”

4.2 끝나지 않는 부담스런 시간

참여자의 생활은 아토피 증상 관리로 보내는 듯했다. 치료와 생활 관리로 드는 소비 비용이 대학생인 참여자들에게 일상에 큰 부담으로 보내는 시간이었다.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들고, 약값은 약값대로 나가요. 옷도 한번 입고 빨고 이불도 자주 빨고 샤워도 많이 해야 돼서 부담이죠(참여자 5).”

IV. 논의

성인초기인 대학생은 대인관계가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여성으로서 외형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시기이다. 여대생에게 외형으로 나타나는 아토피 피부염은 그들의 생활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여대생이 체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참여자들의 아토피 피부염으로 나타난 신체성은 자신의 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여성으로서 수치심이 들어 감추고 싶은 고통을 체험하였다.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에서 부정적인 외모 변화는 환자의 자아상이나 자존감 저하, 일상생활에 다

양한 장애를 초래 하고[7],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질이 낮았다[5]. 남성보다 여성에게 외형의 비중을 더 크게 두는 사회적인 관습은 여대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외형이 자아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외형의 부정적인 인식은 여성으로서의 수치감까지 들게 하고 자신을 부정하여 타인에게 자신을 은폐한다. 여대생이 가지는 자아상이 아토피 피부염 증상으로 외형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자존감이 저하하고 그들을 고립하게 하는 심리 사회적인 문제를 나타냈다.

참여자들이 가장 큰 고통은 하루 종일 지속되는 가려움이었다. 가려움증은 통증보다 참기 힘들며 통제할 수 없어 분노감을 표현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가려움에 대해 '성가시고', '화난다'는 답변을 하여 같은 경험 나타냈다[16]. 가려움증은 삶의 질 저하와 우울증의 유발요인이 되므로[17], 우선적으로 효과적인 가려움증을 조절하는 정보제공과 함께 적극적인 정서 중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지속되는 가려움이 학업에 방해가 되고 한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가려움증으로 수면장애까지 보고되었으며[18], 본 연구의 참여자도 꾀다가 잠이 깨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지속되는 가려움이 학습 방해와 수면장애로 인해 학업 저하를 예상할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무엇보다 학업 영향은 더 큰 괴로움이 될 것이다. 대학생으로서 가려움증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요인을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책감을 느끼며 자신을 지지하는 가족과 갈등을 경험하였다. Kelsay 등의 연구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으로 신체상 저하와 수치심등으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 대상자들은 사회적 관계를 제한하였다[6].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다른 연구에서는 환자의 어머니들은 부담감, 죄책감을 나타냈다[10]. 이러한 양육 감정들은 그대로 환아, 그리고 그 환아가 성장한 현재의 참여자에게 투영되어 갈등으로 남아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사회적 관계, 가족관계의 갈등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진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가진 채 살아가는 생활은 고통과 자책, 지긋지긋함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지만 가족만은 자신을 지지해주기를 바란다. 이는 연구 '아토피아'에서 주인공이 가족에게 '같이 물어주기를 바란다'는 대사에서도 공감할 수 있다[14].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본인 뿐 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부담감을 증가 시키고[10], 불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낮춘다[19]. 아토피 피부염이 가족 구성원에 미치는 심리정서적인 요인과 부담감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고, 치료와 관리 과정에서 가족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가족 단위의 요구를 확인하여 가족이 대상자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이 체험하는 공간성은 자극과 타인을 피하고 홀로 고립하였다. 대학생은 새롭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발달과업을 지니는 시기로 부정적인 외모 인식이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다[20]. 그러나 잭슨 홍의 <가면시인 X>에서는[14] 병을 감추게 만드는 관습, 얼굴을 상품화 시키는 사회에 반발하고 있다. 내면을 간과하고 외모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가에 대해 성인 초기 단계인 참여자에게 물음으로서 주도적이고 적극적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재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간성은 체념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지닌 시간 자체를 잊고 싶어 일상을 무더진 채로 보내기도 하며, 반복적인 치료와 관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이 되는 체험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10] 아토피 피부염을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도 경제적 부담감을 나타냈는데 이는 성인이 된 이후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하는 참여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결과였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비용과 부담에 관한 연구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이 다른 만성 피부질환 보다 더 높은 치료비용이 들며 이는 부담감이 되고 삶의 질 감소까지 보고하였다[21]. 이에 실제적으로 병원 치료와 생활 관리 및 대체 비용 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하며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치료비용의 정확한 파악과 적절한 관리 형태 제시가 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여대생의 생활을 통

참여자가 살피어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나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여대생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과 사회적 관계의 제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처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여대생을 접근 할 때 이들에게 공감적 이해를 갖고 효과적인 간호 중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여대생의 생활에 대해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체험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참여자의 생활과 관련된 본질적 주제는 체험의 기본 구조로서 의미차원을 나타내는 신체성, 관계성, 시간성, 공간성의 4개의 실존체에 따라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부정적이며 여성으로서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어 하는 자신의 몸을 고통으로 체험하였으며 타인의 시선을 자책하고 지지 받지 못하는 관계성을 나타냈다. 홀로 고립하는 것이 안전한 공간성과 부담이 되는 시간성으로 독특한 생활 체험하게 된다. 이는 간호사로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여대생들에게 주요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확인 하고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와 지지간호가 이루어 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여대생이 아토피 피부염을 가질 경우 발달시기를 고려하여 그들의 관점에서 경험하는 신체, 시간, 공간 및 관계를 반영한 간호 중재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의 독특하고 개별적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 연령 및 사회적 지지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M. J. Kim, T. W. Kang, E. A. Cho, H. S. Kim, J. A. Min, H. Park, J. W. Kim, S. H. Cha, and Y. B. Lee, "Prevalence of atopic dermatitis among Korean adults visiting health service center of the Catholic Medical Center in Seoul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Vol.25, No.12, pp.1828-1830, 2010.
- [2] 김계하, 박아영, 김진선, "우리나라 성인의 아토피 피부염 관련요인", *재활간호학회지*, 제15권, 제2호, pp.83-90, 2012.
- [3] B. Engel-Yeger, D. Mimouni, D. Rozenman, and A. Shani-Adir, "Sensory processing patterns of adults with atopic dermatitis," *Journal of the European Academy of Dermatology and Venereology*, Vol.25, No.2, pp.152-156, 2011.
- [4] 권지애, 노기영, 고보영, 김진우, "한국인 청장년 기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임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제42권, 제8호, pp.949-954, 2004.
- [5] 김진혜, 김혜원, 박천옥, 이철현,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삶의 질", *대한피부과학회*, 제49권, 제11호, pp.983-992, 2011.
- [6] K. Kelsay, M. Klinnert, and B. Bender, "Addressing psychosocial aspects of atopic dermatitis," *Immunology & Allergy Clinics of North America*, Vol.30, No.3, pp.385-396, 2011.
- [7] 이희정, 박창욱, 이주희, 이광훈, "성인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삶의 질 평가의 임상적 유용성", *대한피부과학회지*, 제45권, 제2호, pp.159-164, 2007.
- [8] B. Mayer, P. Muris, C. Meesters, and R. Zimmermann-van Beuningen, "Brief report: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 of risk factors with eating behavior problems in late adolescent females," *Journal of Adolescence*, Vol.32, pp.741-745, 2009.
- [9] A. M. VanBoven and D. L. Espelage, "Depressive symptoms, coping strategies, and disordered eating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84, No.3, pp.341-348, 2006.

[1] M. J. Kim, T. W. Kang, E. A. Cho, H. S. Kim, J. A. Min, H. Park, J. W. Kim, S. H. Cha, and Y.

[10] 유일영, 김동희, “아토피 피부염 환자 어머니의 양육경험 내용 분석”, 한국모자보건학회, 제10권, 제2호, pp.169-179, 2006.

[11] L. Richards and J. M. Morse, *Read me first for a user's guide to qualitative methods* (K. R. Shin, S. H. Ko, M. O. Cho, Y. H. Lee, and S. E. Chung, Trans.), Seoul: Hyunmoon Co, 2006.

[12] M. Van Manen,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K. R. Shin & G. N. Ahn, Trans.), Seoul: Dongnyeok, 1994.

[13] <http://ziem.kr/art/39495>

[14] <http://teen.munjang.or.kr/archives/79877>

[15] D. Chrostowska-Plak, A. Reich, and J. C. Szepietowski, "Relationship between itch and psychological status of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Journal of European Academy Dermatology Venereology*, Vol.27, No.2, pp.239-242, 2013.

[16] 심우행, 송창현, 박현재, 김훈수, 진현우, 김수한, 고현창, 김문범, 김도원, 김병수, “성인과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가려움증의 임상적 특징”, *대한피부과학회지*, 제49권, 제4호, pp.318-327, 2011.

[17] Y. S. Linclon and E. G Guba,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1981.

[18] 김진혜, 김혜원, 박천옥, 이철현, “성인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삶의 질”, *대한피부과학회지*, 제49권, 제11호, pp.983-992, 2011.

[19] 김성현, 한덕현, 박혜진, 변지연, 최유원, 최혜영, 명기범, “소아청소년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애착 반응 및 부모의 삶의 질”, *대한피부과학회지*, 제46권, 제11호, pp.1457-1462, 2008.

[20] 장혜경, 손정남, “여대생의 외모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대인관계 및 우울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제21권, 제3호, pp.235-242, 2014.

[21] F. C. Beilert, A. K. Langenbrunch, M. A. Radtke, T. S. Pruwins, and M. Augustin,

“Willingness to pay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Academy of Dermatology Research*, Vol.306, No.3, pp.279-286, 2014.

저 자 소 개

오 윤 희(Yun-Hee Oh)

정회원



- 2005년 2월 : 제주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4년 2월 : 제주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 2014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간호, 간호교육